

“동방신기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동방신기’ 데뷔 20주년

아이돌 시장 부흥·K팝 한류 선도
2009년 3명 탈퇴...2인조로 활동
기념일 맞춰 9집 ‘20&2’ 발표
“무대는 설 때마다 설레는 곳”

“뜨거운 불꽃 이상의 파란 불꽃을 계속 달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강창민)
“감탄을 감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불꽃을 유지한 채 나아가겠습니다.” (유노윤호)

그들 동방신기는 데뷔 20주년 기념일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규 9집 ‘20&2’ 발매를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노윤호는 “동방신기는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와인 같은 그룹”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는 와인처럼 맛과 멋이 풍기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은은한 향이 남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 26일 SBS TV 특집 프로그램 ‘보아 & 브리트니 스페셜’에서 무대를 꾸미면서 데뷔했다.

이어 이듬해 발매한 데뷔곡 ‘허그(Hug)’를 비롯해 ‘믿어요’, ‘라이징 선’, ‘주문’, ‘왜’ 등 내놓은 곡마다 히트시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초반 침체했던 아이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른바 ‘2세대 아이돌’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이들은 특히 2005년 일본에도 진출해 차근차근 인기를 쌓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두며 보이그룹의 K팝 한류를 선도했다.

유노윤호는 물론 비결로 팬들과의 호흡을 꼽았다. 그는 “많은 팬들과 그저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은 쇼케이스일뿐”이라며 “작게는 몇백명부터 7만 5000명 규모의 낯선 스타디움에 이르기까지 관객을 대하는 진심이나 무대를 꾸밀 방안에 대해 스테프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는 분들은 동방신



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번에 연말 공연을 하면서 ‘무대라는 것은 설 때마다 설레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데뷔 당시 5인조던 이들은 2009년 시아준수, 영웅재중, 막키유천 세 멤버가 탈퇴하면서 이후 유노윤호·최강창민의 2인조로 활동 중이다.

“저희에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위기는 무대를 무대답게 할 수 없을 때가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박수 쳐주는데, 저 자신은 진심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요.” (유노윤호)

최강창민은 지난 20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위기의 순간으로 2인조로 재편 이후 처음 무대를 꾸민 2010년 잠실주경기장 SM타운

콘서트를 꼽았다. 그는 “팬 앞에서 다시 무대를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감격과 영광을 느낀 자리였지만, 동시에 둘이 무대를 서는 것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도 느꼈다”며 “공중에서 내려오는 등장 장면에서는 신변의 위기도 느꼈다”고 장난스레 회고했다.

동방신기의 9집 ‘20&2’에는 타이틀곡 ‘레벨’을 비롯해 ‘다운’, ‘로테오’, ‘정글’ 등 다양한 댄스곡이 수록됐다. 두 멤버의 솔로곡과 최강창민이 직접 작사한 팬송 ‘프로미스’도 수록됐다.

동방신기는 오는 30~31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기존 히트곡과 9집 신곡 등을 다채롭게 들려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의 봄’ 북미서 대박...100만달러 매출

최근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영화 ‘서울의 봄’이 북미 관객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배급사 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의 봄’의 북미 매출액이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돌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매출액 91만달러를 기록한 ‘범죄도시 3’를 넘어 올해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작품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한국 영화가 북미에서 매출액 100만달러를 넘

긴 것은 ‘범죄도시 2’에 이어 약 1년 만이다.
지난달 말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3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한 ‘서울의 봄’은 점차 관객의 입소문을 탄 결과 현재 50여 개 극장에서 현지 관객을 만나고 있다.
배급사는 “미네소타, 앨라배마 등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극장이나 배급사에 ‘서울의 봄’ 상영 문의와 극장 대관 요청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연예계 ‘故 이선균 사망’ 줄잇는 추모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박호산(오른쪽)과 고이선균.

보아 “나의 아저씨 사랑합니다” 문정희 “30년 지기 친구 잃었다” 박지윤 “친분 없지만 마음 아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안식을 비는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가수 보아는 28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누구보다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고 분위기 메이커까지 해주며 챙겨주셨던 우리 대장님 그림자”고 썼다.

이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군분투하셨을 성격이신데, 그래도 이제는 편안히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영원한 대장님 나의 아저씨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아는 이선균과 함께 2016년 JTBC 드라마 ‘이웃’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 출연했다.

이선균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배우 문정희는 “열 아홉살에 만나 거의 30년 된 친구를 잃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죄책감과 분노가 치민다.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길 그리고 행복하길 (빈다)”고 적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과 인연을 맺은 박호산은 “네가 무얼 했든 난 너를 믿는다”며 “이왕에 누웠으니 편하게, 이제 두 다리 쪽 뺀고 편하게 쉬렴”이라고 당부했다.

이선균과 생전 인연이 없던 방송인들도 한 마음 한뜻으로 그를 애도했다.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다. 친분도 없었지만 내내 아팠다”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차마 짐작은 다 못하겠지만 내가 죽어야 끝날까 하는 순간들이 분명 내게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은 조금이라도 덜 아팠길 그리고 편안하길 (바란다)”이라고 남겼다.

방송인 홍석천, 코미디언 김지민, 배우 이혜영 등도 글이나 사진으로 이선균을 추모했다.

전날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



가수 보아(왼쪽)와 고이선균.

련된 빈소에도 동료 배우들과 영화계·방송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화 ‘끝까지 간다’를 통해 이선균과 친분을 쌓은 조진웅, ‘김메이커’에 함께 출연한 설경구, 이선균 유작 중 하나인 ‘행복의 나라’ 주연을 맡은 조정석, 유재명이 다녀갔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전도연, 류준열, 김남길, 임시완, 문성근과 영화감독 이창동, 변영주, 변성현 등도 조문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9일 낮 12시이며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에서 수원시연화장으로 변경됐다.

이선균은 앞서 27일 오전 종로구 한 공원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협정,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등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